

입체라벨인쇄

인쇄와 형물의 오묘한 조화

<일반 고무라벨>

- ① 디자인 제작
- ② 금형 제작(입체감을 낼 수 있도록 깊이를 다르게 하고 경계선을 넣어야 한다)
- ③ 액체 컬러 고무소재(합성고무+가소제+안료 및 기타 첨가제)를 색깔별로 금형에 넣는다
- ④ 냉각 후 필요 없는 부분 떼어내고 절단

<입체 라벨인쇄>

- ① 디자인 제작
- ② 금형 제작(입체감을 낼 수 있도록 깊이를 다르게 제작)
- ③ 액체 컬러 고무소재(합성고무+가소제+안료 및 기타 첨가제)를 색깔별로 금형에 넣는다
- ④ 냉각 후 실크스크린인쇄
- ⑤ 액체 컬러 고무소재를 넣어 마무리
- ⑥ 절단

의류나 모자, 신발 등에는 고무소재의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주로 간단한 회사 로고나 상품명만 새겨져 있다.

그런데 이 고무라벨을 자세히 보면 인쇄를 한 것이 아니라 고무제품을 조각해 붙인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이 고무라벨은 조각난 글자나 그림들을 붙인 것이 아니라 금형으로 직접 모형을 만들어 약간의 입체감을 준 것이다.

이러한 제품은 입체감이 있고 물에 젖거나 변형이 생기지 않으며 눈에도 잘 띄기 때문에 의류나 신발, 모자, 가방 등의 라벨로 이용된다. 특히 컬러가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다.

제작과정은 우선 원하는 글자나 그림을 이용해 디자인을 해서 금형을 제작한다. 이 금형은 입체감을 살릴 수 있도록 두께를 달리하거나 색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 제작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액체 컬러 고무소재를 금형에 넣어 성형한 후 냉각시켜 마무리한다.

여기에 이용되는 고무소재의 액체는 주원료인 합성고무와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가소제 그리고 컬러화를 위한 안료 및 기타 첨가제를 넣어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금형의 문제가 발생한다. 금형을 아무리 정밀하게 제작한다고 해도 가늘고 작은 글자나 선을 표현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여러 가지 색을 표현하기도 어렵다.

또한 고무소재를 넣을 때 다른 색의 고무소재와의 혼입을 막기 위해 경계선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날카롭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 결국 원하는 디자인대로 그리고 원하는 색대로 표현하는데 많은 제한이 생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일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입체 라벨은 중국에서 생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특수잉크와 실크스크린인쇄기법을 이용해 입체 라벨을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 특허를 받은 제품이 새로 선보였다.

이 새로운 기술은 금형 제작이나 컬러 고무재

고무소재를 넣을 때 다른 색의 고무 소재와의 혼입을 막기 위해 경계선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고 날카롭게 표현해야 하는 부분은 표현할 길이 없었다. 결국 원하는 표현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고, 인건비 문제로 현재 입체 라벨은 중국제품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최근 삼양산업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특수잉크와 실크스크린인쇄기법을 이용해 입체 라벨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 삼양산업에서 생산하는 입체라벨을 부착한 제품들

질의 액체를 만드는 과정까지는 동일하지만 그동안 이 고무소재에 인쇄가 되지 않았던 것을 인쇄가 가능하도록 특수잉크를 사용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특수잉크는 입체 라벨 생산업체인 삼양산업(대표 장종술)에서 개발한 것으로 컬러 고무소재와 동일한 재질로 잉크를 만들어 접착성을 부여했기 때문에 벗겨지거나 지워질 염려가 전혀 없으며 유·무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또한 세밀한 부분까지 실크스크린인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커다란 메리트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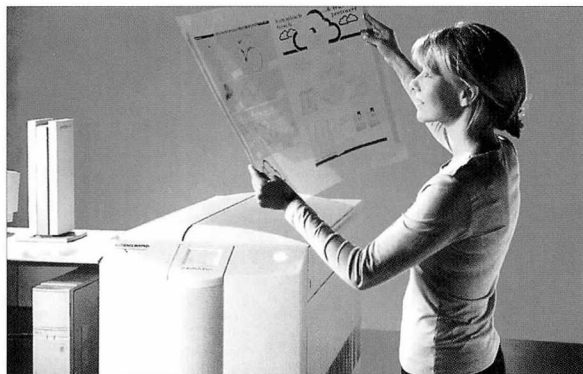
먼저 원하는 이미지를 컬러 고무소재로 할 것인지 인쇄로 표현할 것인지 미리 정해 좋고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물론 복잡하고 세밀한 부분은 인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컬러 고무소재를 이용하는 편이 좋다.

제작과정은 일반 고무라벨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디자인대로 금형을 제작해 액체화 된 컬러 고무소재를 금형에 넣고 식은 후에 실크스크린인쇄를 해 다양한 효과를 내게 된다. 이 새로운 기술은 자동화가 가능하고 작업단계를 축소시킴으로써 국내에서도 제작이 가능해 수출경쟁력을 가질 수도 있다.

〈윤재호 부장〉

홈페이지 : www.newskp.co.kr

부가가치 창출! '투자비 절감' 이 관건입니다



고가의 장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중고기기로도 훌륭한 제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인쇄기기 및 프리프레스 장비 전문공급 업체인 뉴에스케이 시피와 상의 하시면 그 길이 보입니다."

(주)뉴에스케이피

서울시 중구 필동2가 16-24 남지빌딩 401
전화 : 2279-0919 팩스 : 2271-1221
홈페이지 : www.newskp.co.kr

취급 품목 각종 인쇄기 · 컴퓨터기기 일체
· 프리프레스장비